

기력 되찾은 호랑이 '4강 선언'



타선 마운드 업그레이드... 승차 없는 LG와 안방서 3연전 혈투
4위 롯데, 두산과 힘겨루기... 후반기 물고 물리는 순위싸움 불만

물고 물리는 순위싸움이 프로야구 그라운드를 달군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프로야구의 순위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주 후반기 첫 일정을 소화한 8개 구단이 주중 운명의 상대들과 격돌한다. 지난주 난적 롯데와 SK를 상대로 4승1패의 성적표를 받아든 6위 KIA는 안방에서 5위 LG와 만난다. 0.001의 근소한 승률차이로 5·6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매경기 순위가 변할 수 있다. 전반기 전반적으로는 9승4패로 LG가 앞서었지만 최근 KIA가 상승세다. KIA는 지

난주 롯데와의 경기에서 '이닝 사이클링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것은 물론 SK '괴물' 김광현을 상대로 영봉패를 안겨주며 10연패의 사슬도 끊었다. 장타력과 기동력의 동반 향상이 잠자던 KIA 타선을 깨웠다. 홈런왕 김광현의 복귀 속에 백전노장 이종범과 테이블 세터 이용규까지 홈런을 쏟아내면서 타선의 힘이 더해졌다. 고민거리였던 3번 자리에서는 노련한 채종범이 만점활약을 해주면서 짜임새가 한층 총출했다. 올 시즌 78개의 도루로 전체 6위에 머물고 있는 KIA는 지난주 6개의 도루를 성공시켰다. 이용규, 김원섭, 김선빈, 안치홍에 이어

신종길까지 가세하면서 기동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KIA의 팀 분위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 LG는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5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다른 3개 구장에서 벌어지는 주중 대결도 흥미롭다. 대구구장에서는 1위 SK와 2위 삼성이 대결을 갖는다. 1위 독주체제를 유지하던 SK는 지난주 LG, KIA를 상대로 4패를 기록했다. 주전들의 풀부상이라는 악재 속에 2위 삼성과의 격차도 5게임차로 벌어졌다. 대구구장의 경기 결과에 따라 SK의 1위 독주

■프로야구 중간 순위 (8월2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승차	연속
1	SK	62	32	0	0.660	0.0	2패
2	삼성	59	38	1	0.602	5.0	1패
3	두산	55	38	2	0.579	7.5	1승
4	롯데	45	47	3	0.474	17.5	3승
5	LG	42	54	1	0.433	21.5	4패
6	KIA	41	54	0	0.432	21.5	2승
7	한화	38	59	0	0.392	25.5	1패
8	넥센	38	58	3	0.384	26.5	1승

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3·4위를 달리고 있는 두산과 롯데는 잠실에서 승부를 펼친다. 전반기 10번의 대결에서 5승5패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던 두 팀은 2위 탈환과 4위 수성을 놓고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두산은 2.5게임차로 삼성을 쫓으며 2위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 롯데는 지난주 KIA에게 2연패를 당한 뒤 LG를 상대로 싸울이 3



연승을 거두며 한시를 놓았지만 4강행 티켓의 향방은 아직 미지수다. 목동에서는 탈꼴찌를 놓고 7위 한화와 8위 넥센이 대결을 갖는다. 본격적인 순위경쟁이 시작되는 3일, 마운드의 타이틀 싸움도 팬들의 눈길을 끈다. 투수 3관왕에 도전하고 있는 류현진이 3일 넥센을 상대로 14승 사냥에 도전한다. 같은 시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역시 13승으로 류현진과 다승 공동 1위를 지키고 있는 KIA 양현종이 마운드에 올라 다승 1위를 겨냥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톱티자 이용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 FC의 기성용 2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에미레이트컵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뒤 선 말리니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셀틱맨' 기성용 입단후 첫 골 맛

에미레이트컵 아스널전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는 기성용(21·셀틱)이 아스널(잉글랜드)과 친선경기에서 셀틱 입단 후 처음 골 맛을 봤다. 기성용은 2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10 에미레이트컵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1-3으로 끌려가던 후반 38분 만회골을 터트렸다. K-리그 FC서울에서 활약하다 지난해 1월

부터 셀틱 유니폼을 입고 뛴 기성용으로는 공식 경기에서 넣은 첫 골이다. 후반 16분 교체 투입된 팀 동료 차두리가 마르크 앙투안 포춘에게 패스를 내줬고, 포춘이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다시 찰러 주자 기성용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달려들면서 원발로 아스널 골문에 차 넣었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중반 셀틱에 합류한 탓에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지만,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는 당장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

차 예선에 출전하고 이날 경기에서는 득점포까지 가동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전반 3분 만에 카를로스 벨라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44분 바카리 사나, 후반 6분 사미 나스리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끌려간 셀틱은 이후 대릴 페리와 기성용의 만회골로 따라붙었지만 결국 2-3으로 졌다. 0-3으로 뒤진 후반 24분 그리스 국가대표 공격수 요르코스 사마라스가 페널티킥을 실패한 것이 아쉬웠다. /연합뉴스

분데스리가 기대주 손흥민 프리시즌 4경기서 8골

2009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3골을 몰아치며 한국의 8강 진출에 힘을 보탤던 기대주 손흥민(18·함부르크)이 2010-2011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치러진 프리시즌 경기에서 8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2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쾰른 키르헨에서 치러진 FC쾰른과 '리가 토탈컵 2010' 3-4위전에서 2-0으로 앞서던 후반 10분 페기골을 터트려 3-0 승리에 한몫 거들었다. /연합뉴스

한국은 메시, K리그 올스타와 한판

"세계 최고 경기 펼치겠다"

내일 밤 서울 월드컵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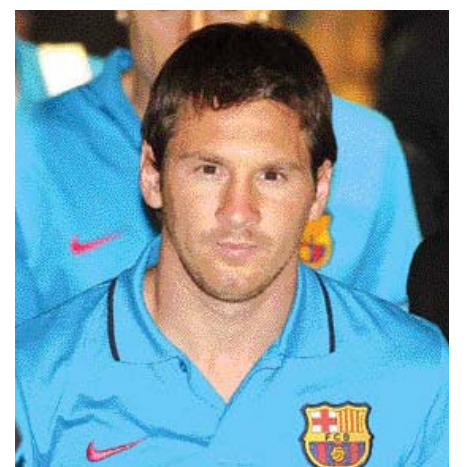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붙었던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공격수 리오넬 메시(23·바르셀로나)가 이제는 K-리그 올스타와 맞서려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메시는 4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 초청 K-리그 올스타전 2010에 참가하려고 바르셀로나 선수단과 함께 2일 낮 입국한 뒤 숙소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방한 소감 및 경기를 앞둔 각오 등을 밝혔다. 장시간 비행 후 바로 기자회견에 나선 메시는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많은 팬이 우리를 기다려준 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한국과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렀다. 비록 직접 골을 넣지 못했지만 아르헨티나의 4-1 승리에 큰 힘을 보탤었다. 메시는 K-리그 올스타와 이번 경기에 대해 "월드컵이 끝나고 오랜만에 경기하는데 새 시즌을 준비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드컵 때 맞대결을 펼친 한국 대표팀의 골키퍼 정성룡(성남)이 이번 경기에서도 메시에게는 골을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성룡은 "월드컵에서는 아쉽게 많은 기회에도 골을 못 넣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꼭 골을 터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수했다.

메시는 키가 170cm다. 축구 선수로서 그리 큰 키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아 축



구를 포기할 생각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에 바르셀로나 동료가 주축인 스페인 대표팀을 떠올린 듯 "최근 월드컵 우승팀 선수를 대부분도 키가 작다"고 웃으면서 "축구에서는 키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1899년 창단된 바르셀로나는 2009-2010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통산 20번째 우승을 일구는 등 스페인 프로축구 사상 첫 '트레블'(프리메라리가, 국왕컵, UEFA 챔피언스리그 등 3관왕)을 달성한 세계적 축구 클럽이다. 이번 방한 선수 명단에는 국제축구연맹 올해의 선수인 아르헨티나 대표팀 공격수 리오넬 메시를 비롯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다니 아우베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다비드 비야, 사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카를레스 푸울 등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사상 첫 우승을 이끈 '무적함대'의 주역들이 월드컵 휴식을 이유로 빠졌다. /연합뉴스



GOLFZON
광주 최고사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